

지금 당신에게 ‘간화선’ 하면 떠오르는 것은?

종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개막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종호)는 8월 20~21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간화선 그 원리와 구조(GanhwaSeon, Its Principle and Structure)’를 주제로 제2회 간화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틀간 펼쳐진 국제학술대회에는 국내외 학자들을 비롯한 1000여 대중이 참석해 간화선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했다.

첫째날인 20일에는 중국선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둘째날인 21일에는 일본선과 한국선에 대한 발표와 종합 토론 등이 진행됐다.

〈관련기사 16·17면〉

뜨거운 열기 속 성료... 동아시아 3국 선 연구·교류 활성화 기대

종학연구소장 종호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간화선의 수행 원리와 구조를 살피고 간화선의 역동적인 원동력을 탐구하고자 한다”라며 “특히 세계 여러 학자들이 간화선 실질을 통해 간화선을 체험하고 이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과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간화선 세계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련 스님은 “간화선 실질을 토대로 참가한 석학들의 보다 나은 연구를 기대한다”며 “간화선 세계화, 그리고 대중화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희옥 총장은 행사를 주최한 종학연구소에 대한 감사와 함께 “동국대는 불교학 발전과 간화선 세계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간화선의 역사와 전통을 체계적으로 세계에 알리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미산 스님도 “간화선은 역대 선수행의 잘못된 병폐에 대해 주창된 것”이라며 “대중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간화선 정체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재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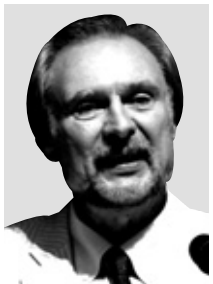
정리=노덕현 기자



간화선의 원리와 구조

“의심없는 간화선이 있을까?”

간화선에 있어서 의정의 전환
로버트 버스웰 UCLA교수



간화선 수행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가운데 하나는 의정(疑情)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인데 이는 수행을 진전시키는 원동력으로 간주된다.

수행을 통해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인 의심이 선사들에 의해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주된 동력으로 전환된 것이다.

고봉은 간화선 수행의 이상적인 대상으로 재가신자를 간주했는데 이는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간화선 수행에 있어

어 의심에 대한 강조는 수행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혼동과 당혹감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런 이유로 세속적 삶이 종교적 수행을 위한 이상적 수련장소가 됐고, 세속적 삶은 간화선 수행의 많은 상황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수행자를 망상에 빠진 범부에서 깨달은 성인으로 변화시키는 중추적 역할을 동아시아 선의 의식 개념이 담당하는 것이다.

“화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현대 한국 간화선의 원류와 구조
유진 스님(동국대 교수)



중국 송대 간화선은 오조법연과 원오극근에서 맹아가 터 대혜종교에 이르러 집대성됐다.

한국의 간화선은 고려 지눌과 해심 이후 뿌리를 내리고 조선시대 고봉의 〈선요〉를 애독하면서 이것이 간화선의 표준이 됐다. 현대에 접어들어서는 경허의 활약이 있었으며, 경봉이나 성철의 활약으로 일반인에게까지 보편화됐다.

대혜가 간화선을 주장하게 된 근본이

유는 문자선의 병폐와 무사안일선의 병폐를 바로 잡고 공간의 본래 의미를 되찾고자 하는 데 있다.

대혜는 공간이란 도구를 들고 나와 자기의 마음바탕을 비취보는 수단으로 삼았다. 경봉 선사는 화두란 ‘법을 묻는데 격외로 답을 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공간의 본래의미를 말했다. ‘화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은 상황에 따른 방편으로 보는 시각을 드러낸다.

“개별적 체험을 보편적 깨달음으로”

수행과 깨달음의 개별성과 보편성
박재현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



생사대사는 보편적 사건인가 개별적 사건인가. 죽음은 일반적 사실인가 구체적 사실인가.

생사대사는 수행자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선수행의 출발점이다. 문제는 생사대사에 대한 철박함은 우리나라의 것이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태어남과 죽음은 보편적 문제지만 억지로 생각해보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생사대는 각자 사람들이 태어남과 죽음을 생

각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지경에 맞닥뜨린 다음에서 비로소 절실하게 불거져 나온다.

이와 같이 간화선은 원리와 구조로 일반화할 수 없는 개별성과 구체성이 있다.

추상화 혹은 일반화 될 수 없는 사실들의 무한나열, 그 무한 나열에서 수행의 단초를 열어 깨달음이라는 보편적 동질성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간화선 수행론의 특징이다.

한 국

“간화선을 한국에 이식한 지눌”

목우자 지눌의 간화선 수용과 그 태도

최성렬 조선대 교수



목우자 지눌은 41세에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대혜종교의 〈대혜어록〉을 보고 최후의 의정을 펼쳤다. 간화선과의 인연은 48세 수선사 중창 후 법회를 열며 〈대혜어록〉을 강설하기도 한다. 52세 〈철요사기〉를 내며 책의 말미에 문구를 소개하기도 했다. 53세의 길지 않은 생애에 간화선과는 겨우 10년 남짓한 인연이지만 성적등지문(惺寂等持門), 원돈신해문(圓頓信解門), 경절문(徑截門)의 삼중문으로 대변되는 그의 선사상은 한국불교 정체성 확립의 초석이 됐다.

“한국간화선 고려말 시작돼”

고려말 간화선 전통의 확립과정에 대한 검토

최연식 목포대 교수



공민왕은 반원(反元) 개혁을 통해 원나라 압력에서 벗어나는 한편 왕권을 견제하는 기존 세족들의 영향력 축소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이는 불교계에도 적용됐다. 주요 산문의 주류를 대신해 간화선사들을 적극 후원해 그들이 불교계를 주도하게 했다. 태고보우, 나옹혜근, 백운경한 등은 왕실 하에 불교계 대표인물로 대두하며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그들은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며 간화선 수행법을 선양했고, 간화선은 주류적, 정통적 흐름으로 자리잡게 됐다.

“엘리트 승가 재건했던 휴정”

서산 휴정과 그 스승들의 저술에서 간화선의 이론

존 조르겐슨 前 그리피스대 교수



조선 초기 반 불교세력에 직면하며 문헌연구를 우선시한 엘리트 승가는 상당히 약화됐다. 휴정은 지엄 선사 저술을 살려 화두 참선을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조직했다. 휴정은 〈대승기신론〉안에서 이론적 기반을 발견했다. 지눌의 저술을 인용했으며 선수행에 대한 이론적 배경에 화엄사상을 통했으며 휴정의 계획은 성공을 거둔다. 그는 조선에 선(禪)을 부흥시켰으며 수많은 제자와 후원자를 끌어들이었다. 그의 핵심저술인 〈선가귀감〉은 한국, 일본 등에서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선논쟁이 선불교연구 촉발”

조선 후기 불교의 선 논쟁

박해당 한림대 교수



흔히 이종선, 삼종선 논쟁이라 불리는 조선 후기 선 논쟁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전개됐다.

조선 말기를 장식한 이 논쟁은 무엇보다 한국불교역사에 불교 내적으로 역량을 집약시킨 것이란 의미가 있다. 백파가 제기한 문제는 선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조선불교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촉발시켰다. 이를 계기로 선에 대한 저술이 다수 등장했으며 조선 후기 불교가 상당한 수준의 이해 수준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됐다.

천의선도 태종선사 김영생(삼봉) 스님이 평생 체험한 대체의학의 신비를 공개하며 전수자를 찾습니다

나 金永生은 13세부터 육경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81세가 된 이 시간 까지도 사람은 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집념으로 정신 수련 중에 46세 8월에 왼쪽 수족이 마비되어 병원진찰 결과 급성뇌종양이며 수술도 할 수없는 위치라는 진단을 받고 하루하루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77년 음력 1월 15일 육경선 정신 수련 중에 삼매경에 들었는데 천신으로부터 천의선도를 전수 받으며 건강이 회복되었는데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터인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대책이 없으니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영능자를 양성해서 인명을 구원해서 후천선경을 이루라는 천명을 받으며 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1일 2시간정도 수련시키며 은용해수를 먹이면 어떠한 질병도 회복된다 하시며 은용기 만드는 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나 보니 내 건강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있지 않은가.. 신화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신기해서 천지신명께 대례 3배를 올리고 논산집에 와서 3일간 잔치를 하고나서 청계천 전기상회를 찾아가 은용해 기구를 만들어 생수 5리터에 은봉을 담구었더니 은이 분해되어 35분 정도 되니 뜨물같이 뿌연해졌습니다. 너무도 신기해서 내 주변에 고통받는 식도암, 간암, 폐암, 위암, 자궁암, 직장암 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시키며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100일씩 복용시켰더니 병원 진찰결과 많은 치유가 있었습니다. 30여년동안 저를 찾아온 암환자가 180여명이 넘는 말기암 환자가 20여년이 넘었는데도 많이 치유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달전에 청주에서 위 전체에 암이 번져 위를 다 들어내야 된다는 진단을 받은 위암 환자가 찾아 왔기에 은용해수를 100일 복용시킨 뒤 재검사 해봤더니 암 세포가 많

이 줄어들고 체중도 10kg정도 늘어났다 합니다. 둘째 평생두통, 견비통,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위하수, 전립선이상자, 요실금 환자에게는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1주일에 1번씩 4-5회기를 넣어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3천여명이 넘는다.

천의선도를 전수시키는 목적이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드리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드리자는데 있습니다. 천하 제일의 민중의술의 대가란 호칭을 받으면서도 천식 침해환자, 자폐증, 퇴행성관절염에는 자신이 없었는데 최근에 글리코 영양소가 개발되었다. 글리코 영양소는 현재 전 세계 의료분야 및 의학계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는 키워드이며 항생물질 유전자를 잇는 제4의 의료혁명으로 주목받고 있다. 천식침해환자, 자폐증 아이들,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몇 개월 복용시켰더니 너무도 신기하게 정상으로 회복되는 체험을 해봤기에 각 사찰 스님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드리려 광고합니다. 천의선도 비전은 종교 지도자님께만 전수합니다.

천의선도 태종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

장 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매 주 월요일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봉빌딩 403호
전 화 : 010-4933-4528





중국 선

“대혜로 인해 간화선은 역동적으로 변했다”

당대선에서 송대선으로의 유동적 연변의 과정에서 나타난 선사상 헤원 스님(동국대 교수)



헤원 스님(동국대 교수)

마조 이후 대혜까지 약 4세기를 걸쳐 중국선은 다양하게 변화 응수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선 사상은 선자 독자의 창안으로 제시된 것보다 기성의 선법에 회의와 폐단이 보여질 때 이를 계기로 보완한 선법이 등장했다. 당대선과

송 이후 선의 비약은 이를 말해준다. 그중 대혜가 간화선의 ‘공안 - 의단 - 대오’라는 형을 개발하고 처음으로 제도화 규격화 한 것은 당송대의 선 사상사의 한 획을 그은 움직임이었다. 이 과정에서 선 사상은 여러 가지로 변모하는데 정리해보면 이렇다. 첫째, 당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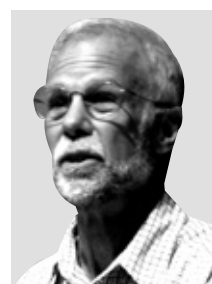
대의 선은 모두 선사들이 문답을 통해 수행자 스스로 깨닫게 했다. 둘째 좌선은 당송대 선자들에게는 불필요한 것으로 단순한 통불교적 행위였다. 셋째, 당대 선의 주류는 현실에서의 여러 가지 작용이 본래불성이라고 한 마조계 선이었다.

넷째, 송대의 선의 주류는 공안선이었다. 큰 깨달음을 위한 방법으로 문자선과 간화선이 차례로 제시됐다.

당송대 선종계의 커다란 흐름은 ‘현실의 작용이 바로 본래성’과 ‘참된 주인공을 발견한다’는 두 양상의 대립의 연속이었다. 남송대 이후에는 참된 주인공을 발견한다는 후자의 경향이 강했다.

“돈오점수에서 수행은 곧 깨달음”

둘 또는 하나의 구원론? 피터 그레고리 스미스대 교수



피터 그레고리 스미스대 교수

우선 규봉종필과 그가 소속된 중국의 선 ‘화엄’에 초점을 두어왔다. 종필의 돈오점수 체계가 간화선 수행을 이해하는데 있어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가.

종필은 공안과 간화 수행이 중국선 전통에 활용되기 이전에 살았다. 선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은 간화선이 발전한 당시 선

종필의 돈오점수 접근 방식은 공안의 화두참구에 초점을 두는 간화선 접근방식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 보인다. 종필의 돈오점수 체계는 한국 간화선 수행과 어떤 관련을 갖는가.

종필의 돈오점수는 최상승선의 특정한 수행과 깨달음의 일치에 이른다. 바로 처음부터 궁극적 목표를 겨냥한다는 것이다. ‘돈’의 주된 의미는 직접적이고 불이(不二)이고 매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돈오돈수의 경우에 있어 수행은 무상인 무념과 동일시된다. 깨달음과 수행이 일치하므로 수단과 결과가 일치한다.

“청대의 선종은 사회문화였다”

청 초기의 두 선승 마 티엔상 무한대 교수



마 티엔상 무한대 교수

선종은 청대에 이르러 그 특색을 잃게 됐고 법맥들은 이름만 남게 된다. 선종은 불교라는 개념을 대신해 사회문화로 유포됐다. 이런 상황에서 입제와 조동이 천하를 품미함에 대표적인 인물이 육립통수와 위립도패 두 선사다.

육립통수는 입제종 승려로 강소 감음 사람이다. 통수의 선사상은 평생 일구의 화두를 참구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인과가 연관돼 감응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의 선학관념과 인생관념의 모순 때문에 처세방식에서 복잡성이 나타난다. 반면 청 초기 조동종은 입제종 만한 세력은 못했지만 그 문화에는 입제와 비견될 제자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위립도패는 가장 뛰어난 제자로 그 법맥은 19세기 중엽까지 지속됐다.

도패는 화두를 간 함을 매우 중시했으며 또한 선정 쌍수를 주장했다. 도패의 사상에는 율불융합의 사상이 나타난다.

“업보조차도 empty한 것인가?”

대혜종교와 죽음의 화두 미리암 레버링 테네시대 교수



미리암 레버링 테네시대 교수

12세기 중국에서 가장 폭 넓게 존경받는 선사 가운데 한 사람인 대혜종교는 특히 재가신자를 위한 간화선의 주장과 깨달음이 성공적인 선 수행의 요건이라고 주장했다.

대혜는 업보와 환생이라는 불교교리의 철저한 신봉자였다. 그는 업을 포함한 제법의 공, 그리고 스스로 그 공을 깨닫는 길에 대해 항상 실명하고 있다.

대혜에 따르면 업과 생명의 공은 한 구조 내에서 조화될 수 있다. 업은 공하므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선언하면 우리는 여전히 약한 행동의 좋지 않은 결과에 고통받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대혜는 공의 궁극적 진리, 그리고 공과 업보라는 진리의 두 측면을 깨닫도록 독려하기 위해 업보에 대한 믿음에 의해 촉발되는 강력한 감정을 이용했다. 그는 재가신자들이 세상속에서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지혜를 키워서 깨달을 수 있다고 믿었다.

“간화선에서 염불은 막대한 영향끼쳐”

중국 간화선에서의 염불 모티프 모턴 솔터 아이오와대 부교수



모턴 솔터 아이오와대 부교수

중국불교사 전반에 걸쳐 염불수행은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수행법이었다. 염불에 대한 보편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다양한 선 전통과 염불이 그 초기부터 결부돼 있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당대에서 명대에 이르는 시기, 선 사들의 염불에 대한 논의의 대다수는 ‘정도는 자성정정심’이라는 유심정도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도불교를 수용하려는 선가의 시도는 ‘누가 염불을 하고 있는가?’ ‘부처의 명호를 염송하는 자는 누구인가?’와 같은 염불공안으로 이어진다. 원명대의 몇몇 선사 특히 주평은 염불공안의 강력한 주장자였는데 주평도 염불은 능력이 적은 이들을 위해 최적화된 용이한 수행법, 간화선은 보다 수습한 수행법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송대 이후 염불공안은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는데 아직까지도 오늘날 중국 간화선에서 강력한 힘을 지닌 화두로 여겨지고 있다.

“허운화상의 삶이 곧 간화선의 삶”

허운화상의 간화선 이론 천석 황 사니엔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허운화상의 간화선 이론 천석 황 사니엔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허운 화상은 중국불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고승이다. 간화선은 그의 가장 중요한 법문 중 하나다.

허운은 31세에 처음 간화선을 접하고 평생 간화선에 몸담았다.

그는 간화선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떻게 간화선을 수행하는가 소개했으며 당시 중국불교의 간화선 체계를 만들었다.

근현대 중국불교에 일찍이 개혁파 지도자인 태허 대사와 운건과 지도자인 원영 대사가 등장했으나 허운은 이 계파 사람이 아니었다.

허운은 산림속에서 절을 지키며 선을 전수하는 한 명의 대사이었고 산림불교를 대표했으며 당시 도시밖으로 떠돌면서 깊은 사원 속에서 생활했다.

허운의 제자들은 선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그 영향력을 매우 넓혔으며 현재 중국불교 발전의 발원권을 장악하는 제자들이 가득하다.

일본

“도원은 모든 종교의례 부정해”

도원이 사용한 여정의 ‘지관타좌’와 다른 공인들 그리스 포크 사라로렌스대 교수



그리스 포크 사라로렌스대 교수

조동종에서는 지관타좌(祇管打坐)를 강조하는데 깨달음을 얻겠다는 의도를 가지지 않는 것, 어떤 대상도 두지 않는 좌선 수행으로 설명할 수 있다.

수행은 깨달음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내재한 불성을 현현하는 길이다.

일본 조동종 창시자인 도원과 그가 행했던 불교수행을 보면 도원은 모든 교리적 이론과 종교적 의례를 부정했다. 대신 그는 지관타좌를 강조했다. 이는 소향 예배 염불 참회 강경이라는 전통적 불교수행을 문자 그대로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었다.

도원의 제술들은 그 수행들을 모두 수용했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도원은 공안을 자신의 주된 교육도로 수용했으며 그 과정에서 지관타좌는 실질적 조언이 아니라 공안으로 사용된 것이다.

“일본 입제종 중흥조 백은”

일본 공안선 백은선의 원리와 구조 나까지마 시로 하나조노대 교수



나까지마 시로 하나조노대 교수

일본 근세는 에도시대(1615~1867)로 약 300년에 이르는 봉건시대였다. 쇠국과 신분제도의 철저한 정책은 불교교단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불교교단은 창조성을 잃어 버리고 에도막부의 종교정책을 충실히 수행할 뿐이었다.

기존 중국선의 영향을 능후히 반영한 전통교단과 한 획을 그은 독자성이 두드러진다.

백은은 에도시대 중기 입제종을 고쳐 세우고 공안을 사용한 수도체계를 완성시킨 ‘근세 입제종 중흥조’로 알려진 존재다. 백은은 선종의 변용을 비판하고 간화선 입장에서 절대적인 경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은 ‘집수음성(集手音聲)’은 대표적 공안으로 본래면목 조주무자를 배린 초심자를 위한 공안으로 사용된다. 백은은 수행의 단계적 성격, 데해 오문 체계를 구성했다.

●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연구, 새로운 시각, 다양한 주제!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1 불교철학의 역사

D. J. 칼루파하나/김종욱 옮김/신국판양장/544쪽/25,000원 불교 철학의 역사 전체를 훑다 본연의 가르침에 따라 정리한 역사!

2 한국의 불교의례 I

정각 저/신국판양장/460쪽/23,000원 한국불교에서 행해지는 의식 및 의례의 역사와 절차, 의미 등을 규명한 책!

3 밀교학 개론

종석 저/신국판양장/286쪽/12,000원 밀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종합불교·현실불교로서의 밀교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조명한 책!

4 범화경의 성립과 배경

塚本豊祥 저 · 이정수 역/신국판양장/576쪽/27,000원 범화경 성립의 배경을 문헌학, 고고학, 미술사, 고문서학, 비평학, 고대외국어에 의거하여 실증한 책!

5 성철선사상

도대현 저/신국판양장/448쪽/23,000원 돈오돈수와 중도로 집약되는 퇴공 성철의 선사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한 최초의 책!

6 인도불교사

정순일 저/신국판양장/726쪽/33,000원 인도 불교의 중요 불교교리와 인물, 핵심 개념과 경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

7 주역선해 연구

정화 저/신국판양장/510쪽/25,000원 명말 고승인 우익자옥이 『주역』을 고도의 불교사상으로 재해석한 『주역선해』에 대한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서!

8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자현 저/신국판양장/280쪽/15,000원 붓다 당시 승단분열의 역사적 과정을 제바달라의 파법륜승, 파승가를 중심으로 객관적이면서 생생하게 추적한 책!

9 불성론 연구

최현민 저/신국판양장/368쪽/18,000원 본성론적 불성 이해에 기반한 승주경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새로운 불성론과 수행론을 제시한 도겐의 사상을 궁구한 책!

10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신국판양장/416쪽/23,000원 불교의 수행론인 마음챙김과 한의학의 치유론인 사상의학 간의 다양한 융합과 그것이 가져오는 창발적 과를 규명한 책!

11 청송의 선과 철학

소광희 외 저/신국판양장/312쪽/18,000원 『선의 세계』라는 저서를 통해 동양적 사유의 결정체인 선과 서양철학의 회통을 추구한 청송 고형근의 사유세계를 정리한 책!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운주사. Includes QR code and contact information.